

지혜로운 사람만이 떠날 때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연과 지혜인은 다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떠날 때 아름다움을 남긴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 성전스님 -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9월 23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원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이해원 의료원장, 백용해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이동환 고양시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원 20주년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은 “그동안 교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에 감사하며 무아 보살행과 환자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동체대비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용해 병원장은 “교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는 자비와 지혜의 등불로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한방 진료 공간 및 탕전실 재정비, 호스피스 완화의료, 암에 대한 치유 의료 등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장기근속자 표창을 비롯해 이사장 공로상, DUMC 혁신상, 동국학술연구상, 모범 교직원 표창장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자비 나눔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은 취임 3주년을 맞아 지난 9월 24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을 방문하여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하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이날 자비 나눔 방문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 진성 사회부장 스님,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 이해원 의료원장, 백용해 병원장, 김동일 한방병원장 및 교직원들이 참석하여 자비 나눔의 뜻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총무원장 진우 큰스님은 치료비 3천만 원과 선물을 난치병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전달하고, 소아운동 및 작업치료실을 방문하여 난치병 어린이 2명과 함께 재활 훈련에 참여하고 격려했다. 또한 진우 큰스님은 “불교계가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하며 아픈 어린이들이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종양센터 개소, 맞춤형 다학제 진료로 여성종양 조기검진·치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9월 15일 ‘여성종양센터’ 개소식을 하고 여성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종양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여성종양센터는 유방 양성종양, 유방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난소암, 부인과 양성 종양 등 여성과 밀접한 질병에 대해 신속한 조기 검진 및 치료가 가능하다. 전문 의료진의 유기적 다학제 협진을 통해, 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이루어진다. AI 기반 3D 자동 유방초음파 진단 및 다빈치 로봇 수술 장비를 통한 최소침습으로 흉터없이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한 장점들이 있어 여성 환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곽범석 센터장은 “여성종양센터는 유방외과와 산부인과 전문의가 함께하는 협진 체계로써 환자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료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시설관리팀 박창훈 파트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시설관리팀 박창훈 파트장은 지난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05년 병원 개원 시점부터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기안전대상 시상식은 전기 재해 예방과 전기안전 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전기안전 분야의 최대 행사다.

박창훈 파트장은 “이 같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병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병원이 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 경기도 김포 가연마을을 찾아 의료봉사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교직원 불자회 연우회는 지난 9월 6일 경기도 김포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가연마을을 찾아 중증 장애인 4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재활의학과 권범선 교수를 비롯해 교직원 20명이 참여하여 진료 상담, 재활치료, 수액 치료 및 의약 물품 공양 등을 지원했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12년부터 가연마을과 아름다운 인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연우회는 병원이 받은 사랑을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들에게 부처님의 자비 정신을 몸소 실천하는 자비의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